



##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 전주시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10일 전주시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수 강사전의 활용 프로그램 기획 상호 교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시 이를 상호 간에 알리고 적극 홍보, 기타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은성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리를 활용해 전주시민들이 전문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교육과정 별글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최우수’



전주기전대학 전주 메이커빌리지에는 종소기업벤처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64개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전주기전대학은 상위 10%에 포함돼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2022년도 운영 실적과 2023년도 운영계획으로 한 해 동안 주관기관에서 수행한 사업계획과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달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메이커스페이스 전주메이커빌리지는 2020년 사업 선정부터 지역민들에게 청년지원과 취업률 강화에 필요한 여러 교육과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리탄공방, 유리공방, 가죽공방, 캠블공방 등 제조중장 강의와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3D 프린터기를 이용한 Inventor 취업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난해 2,0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다. /김영태 기자



## 건협,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한국건강권리협회(이하 건협)는 올해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과 사회공헌 안전 의결을 위해 지난 8일 열린 논의를 가졌다.

건협은 지난 8일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18년도에 사회복지 관련한 외부 인사와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건협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에 대한 결정짓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건협 사회공헌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과 환우기증 종합검진을 지원하는 헌금·난치성질환 가정 통합 지원(메디체크 건강방학), 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지역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천환경 사회공헌 사업’ 등의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김영태 기자

## 완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및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소, 문화 및 집회시설, 관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고장난 소화펌프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반갑다 깡총아!”

### 고창군, 동호초교 반려용 토끼 전달식

전북 고창군과 지역 초등학교가 반려용 토끼 전달식을 열어 화제다.

10일 오전 삼덕읍 고창군수가 해리면 동호초등학교를 찾아 지역 농가에서 기르던 토끼 2쌍을 전달했다.

이번 ‘토끼 전달’은 학교내 동물 기르기가 어린이들의 심리·정서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동호초등학교는 지역내 유일 농촌체험학교로 지정돼 도시 어린이들이 동물을 친해지며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이 끝나자 아이들은 토끼 사육장으로 뛰어나갔다. 손에 상추를 하나씩 집어든 학생들은 몸집이 작은 토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조그려 앉아 토끼와 눈을 맞췄다. 아이들은 “앞으로 토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려동물 체험활동을 통해 교감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길 바라는 마음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 사육장도 직접 제작·설치하게 됐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



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설장 시기에 반려동물을 체험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인성·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신충식 예수병원장, 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 이사장 취임 예배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에서 지난 10일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을 위한 예배가 마련됐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이날 (사)전라북도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이·취임식 자리에서 제3대 이사장에 취임됐기 때문이다.

최원탁 목사(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선종 예수병원 원목실장 기도, 송병희 장로(재무이사) 성경봉독, 임기수 목사(예수병원유지재단이사장) 설교로 진행됐다.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에서 지난 10일 (사)전라북도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 이·취임식 예배를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그동안의 책임을 다해준 이임 원활연 이사장에게 공로패 증정했다.

곧이은 원활연 이사장의 이임사와 김상기 목사(법인이사)의 취임기도, 신충식 이사장의 취임사, 이충일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의 격려사, 김복철 목사(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의 감사 및 축사를 전한 후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적인



회장 취임 순서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기독교계와 성도들의 숙원이었던 전주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업무 협약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은 마음샘 아동가족상담센터(센터장 전은정)와 함께 전주 지역 내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치료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10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가정 대상 심리치료 제공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조사 및 상담 관련 정보 공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경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와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해 이번 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 내 가족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센터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전은정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적인



시례판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해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감소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7월에 개소했다. /김영태 기자

## 남원농협, 농기계 순회봉사대 발대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이백지점에서 ‘농기계 순회봉사대’를 갖고 농기계 순회수리 행사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원농협은 관할 지역 내 7개 동 7개 면을 대상으로 남원농협 농기계센터 직원들이 순회하며 오는 4월 6일까지(24일간) 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봉사에서는 농업인의 트랙터, 경운기, 예취기 등 고장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정비 및 수리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리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열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서로운 4손을 맞겨주신 믿음 더욱 떠올리고 행복하며 허리 넘치는 남원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제16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임실군이 지난 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현장 최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16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농업인대학 학장인 심민 군수를 비롯하여 교육생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및 특강,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16년 차를 맞은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복숭아, 한우)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별 총 20회 8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체계적인 이론 실습 및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경영 능력 양성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민 군수는 “전문 농업 분야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지역 사회를 이끄는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대병원 김소은 교수, 우수신진연구과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의 ‘심근경색 조기 진단을 위한 자가kti용 바이오 센서개발’ 연구가 최근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과제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신진연구과제는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해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교수의 연구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이며, 약 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 교수의 이번 연구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조기 진단을 통해 가정 및 병원 전단계, 응급실 단계에서의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흉통 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진료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심근경색의 빠른 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방법 개발을 위해 연구과제에 지원하게 됐다. 혈중 트로포닌의 광의 강도 측정법을 이용한 심근경색 자가 진단용 센서 개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자가 진단용 센서를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나서

진안소방서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안내에 나섰다.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 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개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종합점검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점증표일로부터 15일이나 제출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30일 △점검 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관계인 접점이 가능하도록 축소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및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은 강원수 전북경찰청장이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따라 합동 점검을 준비했다.

강 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시행을 앞두고 이미 체계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지난 9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석한 간담회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통해 각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현황 및 점검 대상·선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기관 간 협조 사항과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사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각 관계기관들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이 밀집지역 중심,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영태 기자

## 엄의준 완산구청장·엄성규 경찰서장, 상호 협력

엄의준 완산구청장과 엄성규 완산경찰서장은 구정 발전과 상호 원활한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 집중 논의 했다.

지난 9일 엄 청장과 엄 완산서장은 전주완산서 회의실에서 지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업무협조와 관내 발전에 대한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장은 완산구의 지역별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유지·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